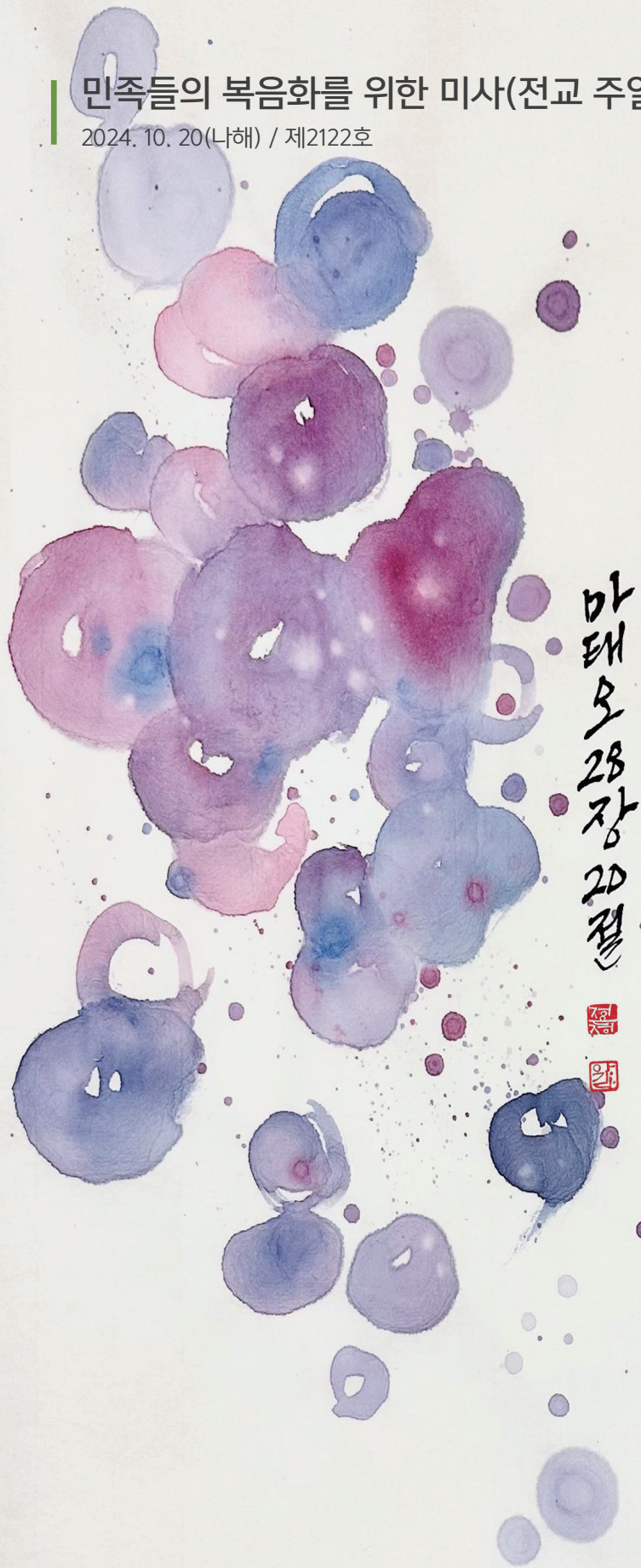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2024. 10. 20(나해) / 제2122호



마태오 28장 20절



내가 보
는 것
은
너희
까지
하
는
것
을
나
와
서
함
께
하
는
것
을
나
와
서
함
께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입당 송 |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
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 1-5

화답 송 | 시편 98(97), 1, 2-3ㄱ, 3ㄷㄹ-4, 5-6

(◎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또는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
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
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
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
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
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 9-18

복음 환호송 |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
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마태 28, 16-20

영성체송 | 마태 28, 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면 성화_정은정 아가다 作

음성지원QR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는 전교 주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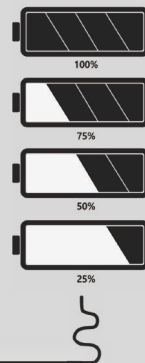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선교의 사도, 바오로는 제2독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선교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
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입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선교의 결과는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주님의 빛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청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님의 음성께 귀 기울여보십시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글 | 김동우 바오로 신부(교구 사무처 차장)



복음의 배터리

글 | 노인빈 엑셀트 신부(장호원 본당 주임)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주님께서서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만나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크나큰 소명과 사명을 전해 받고, 복음을 전할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나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을 그냥 ‘전교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라고 합니다. ‘전교’는 성경을 주면서 ‘성당 다니세요’, ‘세례받으세요’ 하는 것이고, ‘복음화’는 그의 심장에 성경(말씀)을 심어주어 복음 말씀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란 표현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화’에는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핸드폰이 배터리로 움직이듯이 우리 가슴속에 복음 말씀을 넣고 말씀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을 ‘복음화’라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가야, 성당 다녀라!’ 하는 것이 ‘전교’의 일부라 한다면, ‘어머니, 저도 성당에 다니고 싶어요!’ 하게 되는 것을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란 표현은 나도 ‘예수님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화’되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드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음을 심장에 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덕분에 우리 삶이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 되어가는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키오스크와 나

글 | 심재관 사무엘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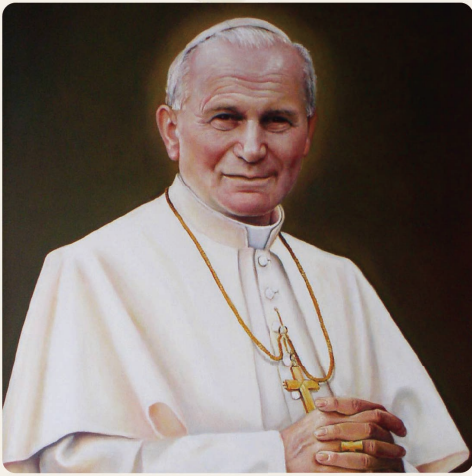
요새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식당, 카페, 극장, 기차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입니다. 이게 뭔가 편하면서도 불편합니다. 잘 몰라서 찔찔매는 젊은 학생들도 여럿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오죽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는데 옆의 어르신께서 꽤나 난처하신 듯 보였습니다. 물건 바코드 찍을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망설이던 그 순간, 마치 슈퍼맨처럼 재빠르게 한 직원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님,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걸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그 직원분은 능수능란하게 어르신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주 쉽고 친절하게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잘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 어르신 또한 직원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답고도 모범적인 ‘직원’과 ‘고객’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모든 마트에서 이런 훈훈한 광경만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어는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갖는 어떤 다짐일 텐데, 일부 손님들은 진짜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무리한 요구를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손님이 오는 것도 짜증이 나는 듯 그저 불

친절하기만 한 직원들도 더러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손님도, 영원한 직원도 없다는 것이죠.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 살아가며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지요.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때론 손님이고 때론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고, 바로 이 ‘노동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만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직원도 ‘사람’입니다. 나만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교회의 사회 교도권은 이 권리들이 법체계 안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중 몇 가지 권리를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왔다. 그것은 곧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 ...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이 모독을 받지 않고 일터에서 자신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등이 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

사회는 ‘나’와 ‘키오스크’가 만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와 그리고 나만큼 소중한 ‘너’가 만나는 곳입니다. 따뜻한 만남으로만 가득한 세상을 기도해 봅니다.



St. Joannes Paulus II
_by Zbigniew Kotyllo_photo by Zkoty1953
_in the Seminary Church of Lublin_Poland

한국을 무척 사랑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축일 10월 22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1920~2005)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카롤 보이티와’입니다. 아버지는 육군 장교로 근무했으며,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보이티와는 소년 시절에 어머니와 형이 세상을 떠나자, 독실한 신앙인인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했습니다. 보이티와는 대학에 진학해 문학을 전공하면서 시와 희곡을 썼습니다. 대학 시절에 폴란드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고, 나치는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보이티와는 화학 공장 노동자로 그리고 채석장 인부로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나치에 대한 저항으로 지하 연극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보이티와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후 로마로 유학을 가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보이티와 신부는 30대에 주교, 40대에 추기경 그리고 50대에 교황이 되었습니다. 456년 만에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이 교황이 되었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취임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추기경들이 차례로 교황에게 인사드렸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인사를 드리자, 교황은 “나는 한국을, 특히 북한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한국을 꼭 방문해달라고 간청했고, 교황은 그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설립 20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자 교황은 무릎을 꿇고는 순교자의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벗이 있어 먼 데로 찾아가니 그야말로 큰 기쁨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벗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교황은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한국에 대해 애절한 연민의 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103위 시성식이 열린 여의도 광장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신자가 모였습니다. 교황은 1989년 세계성체대회를 개최했을 때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이토록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1981년 5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 일반 알현 도중에 극우파 회교도가 교황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교황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나흘 만에 의식을 회복한 교황이 말했습니다. “총을 쏜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모두 같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교황은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았고, 2005년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오래 그로던 여러분을 찾아
로마를 떠나 한국으로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내 마음은 이미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 방문 전 교황의 메시지)

목 주

글 | 안에나 소화테레사(호계동 본당)

어느 날, 우연히 목주클래스를 신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께 “목주를 사기 어려운 나라의 신자들에게 목주를 만들어 기부를 하는 ‘목주닥터스’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주 하나 사기도 어렵다니, 목주가 방 여기저기에 있는 저로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목주를 쓰게 될 사람이 누구일지 상상도 해보고, 목주를 받게 될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사 청하며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밤새워 몰아 만들어 제출한 날도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만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목주닥터스에서 만든 목주들이 대만, 동티모르, 말라위 등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주를 받은 신자들의 사진을 보는순간 그제서야 ‘아!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걸,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을 위한 목주팔찌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 목주들이 어떤 나라의 어린이에게 전해질지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목주를 받는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한알 한알 엮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목주를 받은 신자의 모습



목주를 받은 신자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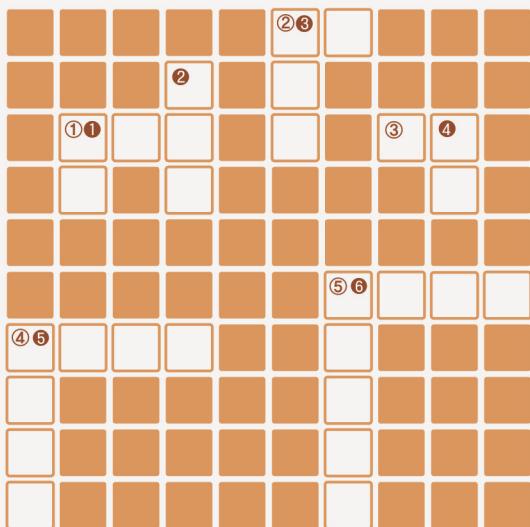


수원주보 '포토에세이'는 교우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로 세로 퀴즈

● 가로 퀴즈



- 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 ②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축성한 거룩한 건물. 신자 공동체가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거처이다.
- ③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죄. 우리는 세례성사로 ○○를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 ④ 조선 후기 천주교회는 4차례의 큰 박해(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오박해, 병인박해)를 겪었다. 이 중 병인년에 흥선대원군의 탄압으로 순교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박해는 무엇인가.
- 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인 이 곳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으며, 예루살렘과 네겟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변에 있다.

● 세로 퀴즈

- ①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주일마다 발행하는 홍보 매체. 주로 강론, 교회 소식, 본당 소식, 미사 전례 안내 등을 실는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 ② 사제나 주교 수품, 수도자 서원 50주년을 축하하는 일이다.
- ③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외우는 기도문으로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 ④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루카 5.31-32).
- ⑤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로 병자나 죽을 위험에 있는 환자가 받는 성사를 말한다. 환자가 고통을 덜고 구원을 얻도록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성사이다.
- ⑥ 이것은 가톨릭 전례력에 따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접하거나 포함된 주간인 교황 주일에 봉헌하는 특별 헌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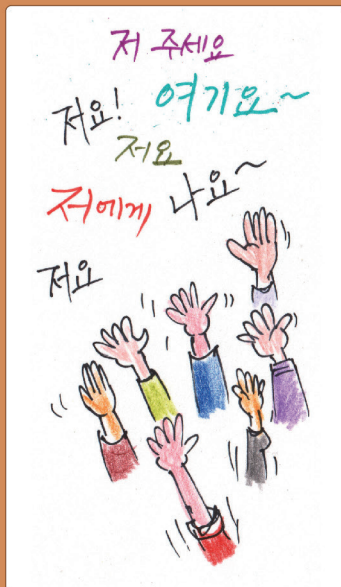


▲ 응모하러 가기

※ '7면 함께하기'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10월 27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신원 베드로 作



■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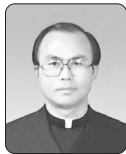
지난 10월 1일 자비로우신 주님의 품으로 떠나신 현재봉(베드로) 신부의 모친 故 김영자(보나)님의 장례 기간 동안 깊은 애도 속에 정성 어린 기도를 봉헌해주신 모든 성직자, 수도자, 교형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喪制 : 현재승(요셉), 현재봉(베드로) 신부, 현재명(바오로), 현경미(마리아), 현경애(소피아)

■ 금주에 기억할 사제



한중훈(스테파노) 신부
2005년 10월 20일 선종



정해성(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1984년 10월 24일 선종

■ 특별헌금

전교 주일(10월 20일)에는 「교황청 전교회 지원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안내

10월 25일(금)은 직원 친교의 날로 수원교구청(대리구청) 휴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성당 아카데미

일시 10.30~12.4 매주 수요일 14:00~16:00
장소 교구청 지하강의실
내용 생태적 회심과 깊이 있는 환경 지식을
현업 전문가들을 통해
쉽게 풀어들을 수 있는 시간
대상 생태적 회생에 관심있는 신자 누구나
비용 2만 원
문의 031) 465-8311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수원화성순교 성지 11월 순교영성 피정

일시 11.1(금) 14:00~17:00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북수동 성당)
4층 대강당
주제 한국 천주교회와 순교자 신심
강사 강석진 신부
찬양 신상옥(생활성가 가수)
미사 최진혁 신부
문의 031) 246-884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수원교구 제155, 156차 바다누에바 피정

일자 제155차 11.22(금)~24(주일) 2박 3일
제156차 11.29(금)~12.1(주일) 2박 3일
장소 갯등이 피정의 집
인원 각 차수 선착순 49명
비용 13만 원
신청 10.21(월) 10:00~11.8(금)
참고 v2.casuwon.or.kr '교육행사'
문의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시노드 영성 피정

일시 11.2(토)~3(주일)
장소 양지 영성교육원
강사 홍성남 신부, 정운준 교수
안동훈 신부, 한민택 신부
내용 선교와 시노달리티스
대상 모든 신자
회비 8만 원(하루 참가 시 4만 원)
계좌 신한 131-022-461892 사무처
마감 10.21(월)
문의 031) 268-2210, 010) 8376-7031
직암선교후원회

양지 영성교육원

장소 양지 영성교육원
거룩한 독서 (렉시오디비나)
일시 11.9(토) 10:30~17:00
내용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이끄시는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
강사 이영근 수사
비용 5만 원(점심 포함)
참고 단체 환영
효소절식
일시 10.25(금)~27(주일) 2박 3일
11.29(금)~12.1(주일) 2박 3일
내용 몸과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채우는 시간
비용 27만 원(효소값 포함)
문의 031) 321-9054, 9060
양지 영성교육원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비용 첫걸음, 일반 과정 수강료 : 5만 원
(한 과목 수료시 2만5천 포인트 지급)
2과목 수강 시 10% 할인
3과목 수강 시 15% 할인
성경 통독 과정 신설 : 무료
신청 365일 신청가능!
참고 <https://cyberbible.casuwon.or.kr>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 360-7635, 010) 7470-7966

상설고해소

북수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246-8844~5

성남동 성당
일시 매주 화요일 14:00~16:00
문의 031) 754-0409

중앙 성당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문의 031) 441-3531

평택 성당
일시 매주 목요일 14:00~17:00
문의 031) 654-2702

미사·피정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0.21(월) 10:00. 송탄 성당
10.23(수) 10:00. 성남동 성당
10.25(금) 10:00. 신갈 성당
11.1(금) 10:00. 중앙 성당
11.5(화) 19:30. 오산 성당
11.8(금) 10:00. 시화성바오로 성당
문의 02) 3673-2525 한국외방선교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치유 피정

일시 매주 화요일 12:30~16: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10.22 이상기 회장
10.29 음악과 함께 치유시간
문의 010) 5514-4077 토아올람

제27차 교구 성체 현양 대회

일시 10.24(목) 09:30~16:00
장소 죽산 성지
강사 김재덕 신부
미사 이성호 주교, 사제단
대상 모든 신자
참고 참석자 전대사 부여
문의 010) 5223-4840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장소 서울 명상의 집
개방의 날 무료 피정
일시 매월 첫 금요일 10:00~15:30
다네이 영성수련
일시 10.25(금)~27(주일)
단식 피정
일시 11.25(월)~29(금)
노베나 기도
일시 11.2(토)~10(주일)
내용 9일 동안 미사&위령기도 봉헌
문의 02) 990-1004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일시 10.28(월) 14:00~16:00(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냐시오 소강당
주제 전례와 신앙체현-미사를 중심으로
강사 예수회 구정모 신부
비용 무료
문의 02) 705-4711 (학)서강대학교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일시 11.1(금)~9(토), 12.6(금)~14(토)
내용 성경 완독
문의 010) 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토요 치유평정

일시 11.2(토) 13:00~17:00
장소 제2대리구청 교육관 성령새신 기도의 집
강의 김경희 수녀
미사 박현민 신부
대상 누구나(개인컵 준비)
문의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시 11.15(금)~17(주일). 허규 신부
12.20(금)~22(주일). 이성호 주교
2025.1.17(금)~19(주일). 신우식 신부
문의 043) 651-4563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대피정

일시 11.16(토) 09:00~17:00
장소 분당성요한 성당
대상 모든 신자
강사 김유신 신부, 박효철 신부
미사 사제단
문의 010) 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자연순례
일시 11.16~19(추자도), 11.21~23
11.25~28(추자도), 12.1~3, 12.6~8
연말연시
일시 12.29~1.1(한라산 산행 포함)
내용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한라산 눈꽃산행 접수 중)
문의 02) 773-1455, 064) 796-4182
성 이시돌 피정의 집

ICPE 몸신학 피정(시그널 심화)

일시 11.22(금) 저녁~24(주일)
장소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대상 가톨릭 젊은이 청·장년 누구나
문의 010) 5646-6594 ICPE카톡 플친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생태순례
일시 12.7~9, 12.13~15
한라산 포함
일시 1.17~19
성지순례
일시 11.18~21, 11.24~27, 12.1~4
연말연시(한라산 눈꽃산행)
일시 12.30~1.2
내용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문의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 면형의 집(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교육·모집

2025학년도 소화초등학교 신입생

접수 특별전형(온라인) 10.22(화)~23(수)
특별전형(우 편) 10.22(화)~11.1(화)
일반전형(온라인) 11.4(월)~7(목)
원서 <http://sohwa-e.goesw.kr> 다운로드
문의 031) 217-6623 소화초등학교

2025 전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접수 11.4(월)~15(금) 17:00
전형 12.2(월) 14:00
문의 02) 3147-8156, 8664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마음 행김(분노조절 심화 용서)

일시 11.9~30 매주 토요일 14:00~17:00
장소 우만동 수녀원
문의 010) 7342-9300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생활성서와 함께하는 행복한 복콘서트
'미소한 그대가 희망'**

일시 11.30(토) 14:0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강당
출연 한민택 신부(저자)
김지현 아나운서(진행)
고요울(생활성가 가수)
비용 무료
대상 누구나
인원 선착순 150명
주최 수원교구 홍보국
주관 생활성서사
문의 02) 945-5985 생활성서사
031) 242-8081 수원교구 홍보국

한울림국악합창단 단원

연습 매주 수요일 19:00~21:00
장소 성 라자로 마을
대상 누구나
지도 강수근 신부
문의 010) 5357-0995
한울림국악합창단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신입 단원

연습 매주일 13:30~16:0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4층
대상 37세 이하 신자 또는 예비신자
(전공 무관)
참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카카오톡채팅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문의 010) 3214-0797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성물, 묵주 조각 기초부터 전문까지

신청 cafe.naver.com/cmc04

문의 010) 5234-5044 가톨릭목공예

수원가톨릭아트숨도미네(뮤지컬) 단원

연습 매주 화요일 21:00

장소 아트숨도미네 연습실(성남시 분당구)

내용 2025년 신작

"Via Domini-주님의 길"에 함께 할 단원

분야 배우(성인 남성 00명)

신청 이메일(musical@adsumdomine.org)

문자(010-9935-787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 모집'

문의 010) 9935-7870

수원가톨릭아트숨도미네

기 타

제주·해외·한국 성지167 성지순례

일시 11.2 홍콩·마카오 4일

25.2.6 스페인·포르투갈 12일

(수원출발) 한국 성지 167곳 35만 원

제주 39만 원부터

참고 www.michaeltour.co.kr

문의 010) 8650-9690 미카엘 여행사

라파엘 해외 성지순례

일시 1.6 멕시코 과달루페·칸쿤 10일

라파엘 특선(동반자 100만 원 할인)

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1.15, 2.11, 3.11 포르투갈 일주 9일

3.26 이탈리아 일주(대히년 전대사) 9일

문의 02) 778-8565 라파엘여행사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성 김대건 성지 롤룸보이

마나오 성지 5일

일시 12.2(월)

라방·작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일시 12.10(화)

참고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 5909-5997 성심여행사

국내 167곳

제주, 베트남, 마카오, 일본 성지순례

일시 국내 167곳, 제주. 35만 원

나가사키 3박 4일. 120만 원

아키타 3박 4일. 145만 원

북해도 3박 4일. 150만 원

베트남 3박 5일. 120만 원

마카오 3박 5일. 150만 원

문의 010) 4239-1929 마르코투어

제27회 수원교구 미술가회 정기 전시회

일시 11.1(토) 09:30~11(월)

장소 수원화성순교 성지 내 불리 화랑 2층

문의 010) 3301-4336 수원교구 미술가회

대전해수욕장 요나 성당(연수원)

내용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 (인근 성지)갈매꽃 순교 성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방법 '요나 성당 연수원' 검색

참고 yonaresort.modoo.at

문의 041) 934-7758 요나 성당

교구 내 병원 목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031) 412-5447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031) 787-1877

성남시의료원

031) 730-4501

아주대학교 병원

031) 211-5419

용인 세브란스병원

031) 329-7725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02) 2610-9466

평택 성모병원

070) 5012-3679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031) 8086-2970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

031) 380-4187

채용·봉사자

본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광명 본당 사무원 / 채용 시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신봉동 본당 반주자 / 채용 시

아론의 집 직원

대상 관리원(관사 제공 가능)

조건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교적 사본

마감 채용 시

문의 031) 452-4071 아론의 집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10.27(주일) 14:00~16:00 (그 외 전화)

장소 서울 보문동 수녀원

문의 010) 9353-1773(미리연락)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대상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상시 상담가능)

문의 010) 9199-4995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10월 13일자 수원주보 7면 정답>



▲ 당첨자 확인



▲ 그림파일 다운로드

※ 원본파일(숨은 그림 찾기, 가로 세로 퀴즈, 퍼즐)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won.catholic



수원교구 인스타그램

수원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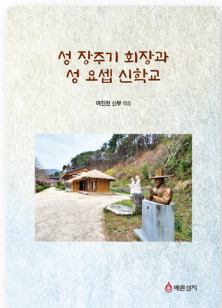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문화산책

시간 및 공연 게재신청 : 홍보국(hongbo@casuwon.or.kr)



성 장주기 회장과 성 요셉 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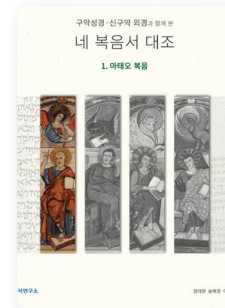
평신도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소임을 충실히 따랐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장주기 성인의 일생과, 성인의 봉헌으로 세워진 배론의 성 요셉 신학교의 설립과 의의를 엿었습니다.



성경의 길을 따른 어린이 여정

구약4: 지혜서, 예언서

이 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지혜의 말씀이 담긴 율기, 시편, 잠언 등과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의 행적과 신앙을 담은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등을 어린이들이 친숙하고 재밌게 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구약성경·신구약 외경과 함께 본 네 복음서 대조 1. 마태오 복음

이 책은 네 복음서를 대조하며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네 복음서를 구약성경, 구약 외경, 신약 외경과 함께 읽음으로써, 구약성경에서 시작하여 신약 외경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믿음의 역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 출판 | 여진천·기쁜소식
금 액 | 9천 원
문 의 | 02) 762-1194

글 · 출판 | 생활성서사
금 액 | 1만 원
문 의 | 02) 945-5985

글 · 출판 | 정태현 외·한남성서연구소
금 액 | 3만5천 원
문 의 | 031) 846-3467



수원교구 사목월간지 인침

contents

주교의 일기 교수 신부로 살았던 시간
작은교회, 우리사이 직암회 해외선교봉사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앙이야기 박경민 로사, 김혜진 요세피나
생생 수원교구 여기! 생태영성 월피정
소란스럽고 발칙한 나의 성당 적응기 오늘의 복음에서
우리도 생태사도 다양한 생태 보호지역
나이 들의 시간 말은 그렇게 해도(상) / 노인의학
나는 사제다 조규식 요셉

정기구독료 월 4,000원(1년 40,000원)
문의 T. 031-248-1811

구독 신청▶



외침 eBook▶

